

대전100729b마태복음6강

2010-12-01 12:32:11 녹취 : 송재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일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산상설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상설교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은 뭘 의식해서 했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 실천력, 그 의를 전제로 해서 "이 의는 아니거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그림을 그리면 쉽게 되는데 산꼭대기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합시다. 여기 유대인들은 지금 열심히 율법을 실천에 옮김으로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까 점점 더 거기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접근해 가면 여기 서열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여기서 생기는 것을 7단계로 나눈 거예요.

"진짜 더러운 인간, 백정같은 인간, 세리, 창기같은 인간은 저 밑바닥 지옥 구렁이에 떨어져라."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앞장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였던 서기관들. 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의에 가장 접근했을까요? 저들이 접근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지금 산 뒤쪽에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앞쪽에 이야기 합니다. 뒤쪽은 의로운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의와 가깝다고 하냐면은, 이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일반인들과 차이점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다룹니다. 다룬다는 말은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떤 목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설교할 때 혹시 교인이 "목사님도 자기 설교대로 했어요?" 반발하면 자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자기는 할 수 있는데, 자기만이 할 수 있는데 감히 장로 집사 레벨에서 감히 자기를 못따라오게 설교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가 돌보입니까? 자신이 권위를 가지겠죠.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겠죠.

"너희들이 목사가 영적 아버지라고 우긴다고 불평하지마라. 나처럼 해봐. 그러면 당신을 섬길게." 라는 식으로 큰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알아봐. 내가 집사님을 존경하지 말래도 존경해줄게." 라고 자신만만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 집사들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잘난척하기는 하지만 교회 섬긴다고 이만큼 신경써 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사니까 우리같은 범인들은 돈 번다고 세속적이고 속된 인간이 감히 어딜 넘겨봐.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포기하도록. 견제하던 것을 나자빠지도록. 그래서 손떼고 나자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코치도 없는 젊은 백수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오게 되면 목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 했잖아요. 법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법을 제시한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한 방법은 법대로 다 안 하므로 말미암아 법을 제정한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 인간은 법이 주어지게 되면 법의 예속을 능가하기 위해서 지키는 방법으로 능가하기도 하고 그것에 깡그리 무시하므로서 능가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 날 술 더 쳐먹고 들어오는 아들.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가 술 먹지마라고 하면 아침마다 술 안 마셨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아버지여 술 안 마셨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한테는 이야기 할 것이 없게 만드는 방법. 심리적으로 마조이즘(masochism), 사다즘(sadism)이라고 합니다. 얻어맞는데서 쾌감을 느끼는 것과 때리는데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양쪽이 동일한 동질의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프로이드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법에 접근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다루고 해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의 해석은 전통입니다. 기원전500년경 해석한 것, 기원전490년 해석한 것. 이 해석을 그냥 막 해석한 것이 아니고 500년 해석한 것에도 +α, +α 막 보태겠죠. 그럼 이 해석을 누가 합니까? 해석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냐? 예.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성경을 가르쳐 줄게. 라는 말은 성경을 가르친 사람만이 지킬 수 있고 일반 범인들은 도저히 그 수준에 못미쳐야 차이가 일어나겠죠. 그럴 때 말씀의 권위로서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고 뭐고 해도 영빨이 있는 사람을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중세 로마제국이 그랬습니다

중세 로마제국에서 기독교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성가대는 고위직이예요. 고위직이 될려고 얼마나 돈을 먹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뇌물줘서 고위직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처럼 한 3선해야 본전을 뽑잖아요. 자기가 고위직에 있어 놓고 소위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운 계급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무식한 일반 농민들이나 천민들에게 자기의 본전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뽑아낸 그 인간들은 평가평가 놓고 있고. 그게 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국가가 다 그래요. 왕은 신의 아들이예요. 여기서 애굽의 신화의 특징이 뭐냐하면 신이 떠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왕의 할 일은 신이 안 떠나도록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해야 되요. 그게 뭐냐 신전을 지어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이유를 불문하고 동원되기 때문에 그들은 저임금 받고 영차영차해서 이집트 나일강 채석장에서 돌을 깎아서, 그것도 통나무로 굴려서 신전짓자 해서 거대한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거대한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신의

보호가 더 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제국이 오래간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방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에서 모세언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수련회 때 할거니까 미리하면 재미없죠. 아브라함 언약은 혈통적으로 할례만 받으면 이미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례언약이 뭐가 돼요? 믿음이아니고 뭐가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속죄제 드리면 속죄 받는다. 어느 인간도 다 그래요 예레미야 보고 속죄제 드리면 속죄 받는다. 그런데 막상 보게 되면 속죄제 드린 것 하고 속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사 받쳐도 속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속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세하고 아론하고 대화 가운데 그것이 등장해요. 모세는 오해해 가지고 속죄제 제대로 안 드려서 용서 못받겠다고 하니까 아론이 반박하기를 속죄제 여지껏 제대로 안 드렸어도 속죄 받았잖아요. 보세요. 내 말이 맞잖아요.

지도급 사이에서 의견충돌이 벌어져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더라도 속죄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리모콘 가지고 TV를 켜다고 합시다. 우리 상식은 리모콘을 켜면 신호가 가서 에너지가 나와서 켜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리모콘 누르는 것하고 TV이 켜는 것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뭘니까? "리모콘 없어도 하나님이 맘대로 켜면 되겠네." 라고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안된다는 거예요. 리모콘 들고 누르라는 거예요. 리모콘 누르기는 누르는데 니가 누른다고 해서 TV가 켜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예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항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비로서 지평선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눌러서 터져 버리면 우리는 자비고 용서고 눌러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누르는 것 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누르고 그냥 오게 되면 자비가 자비값을 못해요. "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아니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율법을 준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 막고 모든 인간을 저주아래 두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성경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은 따져보니 다 죄였더라는 것을 들추어 내는 겁니다. "거지는 불쌍해" 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주님앞에 "예수님 나도 거지인데 왜 나도 죄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것이 "거지는 나쁜거야. 거지는 망한거야. 거지는 저주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거지 모습으로 와버리면 "그럼 나도 저주 받았겠네?" 라고 나오면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은 옳은거야. 이것은 바른거야. 이것은 훌륭한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경보면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 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리모콘 누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받을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알아서 사랑을 해줬고 구원을 해줬구나를 우리가 이 말씀속에 들어감으로서 아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근호 목사는 무율법주의니, 율법폐기론자니 라고 김성수 목사 이야기 합니다. 내 이름은 안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율법주의고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율법의 기능을 몰라요. 어디까지 이야기 했더라? 아,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해나가는데 전통적으로 계속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 실천력을 제일 앞장서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놀리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천당 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예요. 재들 못가면 나머지는 다 천국에 못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접촉하라고, 타치하라고 한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전통을 좋아하는구나. 너희들은 전통말고는 믿는 것이 없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논문 발표할 때 제 옆에 말고 옆에 있는 나이 오십초반쯤 되는 교수가 뭐라가 했느냐면 "나는 역사적 해석법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역사적 해석법을 믿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역사적 해석을 믿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자라면, 성령받으면 뭐가 나와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역사적 해석법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 사람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을거 아닙니까? 특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꼬챙이입니다. 토하기 전에 꼬챙이 가지고 배를 확 썬서 버리면 왈락 쏟아져 나오잖아요. 십자가 뽕죽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뽕죽한 끝을 가지고 꼭 썬서 버리면 구멍이 뽕뽕리면서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런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시면서 너희는 독사의 새끼며 자신도 천국에 못가면서 가고자 하는 사람까지 가로 막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다루겠어요? 주님께서 이쪽 세계, 이쪽 세계는 감추어진 세계인데 현재 있는 세계를 가지고 감추어진 세계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역전시킵니다. 계급이 7단계라고 했죠? 7단계를 거꾸로 해버리면 세리와 창기가 앞좌석보다 뒤로 가는 거예요. 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기차가 부산에서 서울가는데 뒤에 꼬랑지에 있는 기관차를 앞을 끄는 기차로 만들어 버리면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착각되어 버리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버렸어요. 죄인들과 술마시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했습니까? 금식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를 보니까 이런 짓하고 있으니까 불쾌하게 여기고 따졌죠. 이 금식의 시간에. 지금 무슨 날이죠? 금식의 날이죠. 금식의 날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통 해석법에서 나왔죠. 이사야 58장에 금식하라고 했거든요. 시킨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시킨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니까.

금식하는 날에 예수님은 술먹고 땡가땡가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나?" 하니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9장).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병든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할 때 그 바탕이 어떤 바탕일때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순서지어 놓은 그 세계에서만 예수님의 말의 의미가 있죠. 순서지움. 그 순서는 무엇과 무엇의 순서다? 누가 누가 착하냐의 순서. 누가누가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했는가에 그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관복음, 마태복음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산상설교를 뭐라고 합니까? 지켜서 그 지킨 것으로 바리새인짓을 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산상설교도 지켰다. 그 사람은 산을 넘어가면서 또 산을 올라 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맨 마지막에 만나는 사건이 뭐냐? 문둥병.문둥병은 왜 걸릴까요? 앞에 레위기를 보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그냥 내가 용서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 뒤에 나온말이 병든자를 내가 대신 담당한다는 말이 나오고 9장에 들어가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버리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병 낫게 하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병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탕이 뭐냐하면 앞쪽에 있는 이쪽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인간들의 아이디어에서 역사적, 전통적 해석법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일한 해석법. 해석법에 의한 질서체계 속에서 주님께서 함세한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섞이니까 주님이 하신 산상설교 말씀을 지킬려고 하는 사람도 오해고. 오늘날 교회처럼. 산상설교를 지킬려고 하는 사람도 바리새인처럼 오해했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오해했고. 둘 다 오해 한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6장을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면 심판주에 한에서 심판주의 권한으로 면제시켜 줄 수는 있는 백. 심판주에 한해서 백을 써서 빼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들어가야 되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는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며 모든것이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육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가? 그러면 산상설교는 누구한테 해당이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죠. 왜? 우리가 바리새인 기질이니까. 우리가 교회 백날 20년, 30년 다녀봤자 바리새인 기질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힘들다고 했는데 그 힘드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거기서 법적인 그것을 다 실천해 옮겨야 되잖아요.

그 실천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면 안 되냐면 담임목사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되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 손양원 목사, 주기철목사. 너무 좋아해도 안 좋아해요. 목사들이

빠진다니까요. 자꾸 그 이야기를 해버리면 목사가 더 빠져서 "그럼 그 교회 가지 왜 우리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영원히 내 톨마니 되고 내 수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쭈~~욱~~~내 톨마니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계속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먹을 수 있다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목동이 양치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양고기 빼먹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양고기를 빼먹는 것이 정상적인 목동이고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상식적인 목자를 벗어나 버립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게 미친 목자지요. 무슨 목자입니까? 어느 세상의 축산 농가의 농부가요 "소아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축산업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거 언제 잡아 먹을까? 언제 팔아 먹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니. 목숨 바치는 목자 같으면 아무도 목사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 평할 때는요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목사 되려고 설교하는가. 목사를 포기하려고 설교하는가.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나 이렇게 삽니다 라고 증거하느냐. 만약에 목사짓 하려고 하면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들어 봐요. 이거는 보음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나 이렇게 삽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받은 증인이 되어야지. 지가 뭔데 가르칩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밥벌이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이야기 해도 그것은 밥벌이예요. 우리 하나교회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 보셨습니까? 특징이 있어요. 목사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예요. 목사 자체가. 아까 장로님께서 교회 직분하는 것 부담스럽듯이. 목사가 목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 계급 다 떼고 복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들을만 하고 고마워하고 같이 눈물흘리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건방떨지 않고. 첫번째는 '나 목사 포기할랍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두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밤에 이것 믿고 죽으면 천당갑니다." 하는 뚜렷한,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일 열심히... 그거 없어요. 오늘밤이 마지막 밤. "이거 믿으시고 끝까지 죽으시면 낙원에 도착합니다." 라는 그 함축된 내용이 들어 있느냐.

예수 믿고 착하게 삽시다. 이런 것 말고. 착할 내일의 시간이 없는데. 무슨 착하게 삽시요? 그만 이거 먹고 죽읍시다.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설교예요. 차카게 사는 것은 조폭들이 하는 짓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끝이나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 그러면 이것은 사람을 좋게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불신자를 좋게 하라, 성도를 좋게 하라 했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라 해놓고 성도, 불신자 다 집어 넣고 그 다음 반대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라 했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 속에 누굴 포함시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 시키죠. 이것이 어려워요. 자신을 포함시키면 이 설교가, 강해가 설교하는 나를 기쁘게 한다? 안 한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쫓겨다니고 살해당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저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날개 핀 것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성령충만.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이랬습니다. 그냥 퍼버리는 거예요. 이 설교 가지고 내 이득을 가져다 줄지 안 줄지 전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긴 설명 다음에 오늘 본문 들어 갑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또 주의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지키는 사람이 있죠. 아까 바리새인처럼. 이거는 우리가 리모콘을 쥐고 한번 눌러보라 이 말이죠.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바리새인 욕할 것 없어요. 성경보는 우리가, 뭔가 바리새인 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장들이.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눌러 버렸는데 영생의 불이 켜졌잖아요. 그것은 누구 맘대로 입니까? 주께서 맘대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거 또 상이 나오네요. 상이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룩한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상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해석 말고 성경해석을 돕기 위한 보조법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상이 많고 이렇게 하시면 상이 적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차이가 납니다 라는 것이 이미 바리새인들의 아이디어로 수백년 굳혀온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수 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먼저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오래 접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말씀을 짧게 접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참이 신참보다 낫다는 거예요. 신참들이 까불어도 이미 고참, 지가 했던 것을 가지고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은 이런것이 아니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생각했던 상입니다. 이 상은 반드시 차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상은 차등이 아니고 상은 상인데, 이 상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받도록 힘주시는 그것까지함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 주어집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을 주었고 심었고 뿌렸고 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씨뿌리는 것을 하게 했고 물주는 것을 하게 했다는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직분 받은 것 자체가 거기에 상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자체가 상이다. 내가 복음 전하는 자체가 상이다.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면류관이었고 면류관 안 쓰고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집어 내었기 때문에. 일 시키면서 거기에 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보면 그 밑에서 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은 영원히 이 땅에 있는 상이 아니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상. 영원한 상.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것은 제가 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너도나도 다 반납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반납 안 하고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보고 있죠. "벗어. 빨리 벗어라"는 무언의 압력이 있죠. 우씨~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죠. 성경에 재미난 이야기가 그거예요.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 간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성경 이야기 말고 민사재판 이야기 한다면. 성경을 전혀 모르고 민사재판하는 가운데 거기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형의 재산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에게 돌아올 재산만 나에게 돌아 온다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말이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도와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내것 챙기는 것도 탐심이다. 그러면 그 형을 왜 배치한 거예요? 나는 탐심이 없다고. 내것 챙기는 것은 탐심이 아니라고. 누누히 바리새인의 성경 해석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탐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막상 뺏아감을 통해서 내거라고 여기는 것도 탐심이죠. 레위기 강요안에 나오는데 의사들은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장기 따로 놓는데 사실은 이게 떡이라고 했죠. 이거는 내거야! 내거야가 언젠가는 다 날라가 버립니다.

사람이 탐심을 부리는 것은 나라의 것이 수립되고 나에게 끌어 모으기 위해서 탐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되면 탐심이 작용하는 이유가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야 너것 댄 사람은 있는데 너는 없잖아? 니 약오르지도 안해. 뭐해?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얻으란말야. 응답 받으란말야. 아들 없을 때 한나처럼 기도해." 자꾸 탐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설교 할적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른 이유가 있었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마지막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예레미야를 부른 이유가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 쳐들어 왔을 때 선지자 이사야 불드니까 하루 아침에 십팔만 팔천명 다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해석이 뭐냐하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형식을 갖추면 그 복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죽었죠. 그리고 과거에 언약궤만 앞장 세우면 바다도 갈라지고 전쟁도 물러가니까. 블레셋 나라가 왔을 때 옛날 성경에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더라? '아하, 그렇구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겠다.' 하다가 그 언약궤에서 둘이 죽었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옛날 다윗이 어려웠을 때 그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되었다.

그거 들도 난 뒤에 중국 펀드한 사람들, 주식투자 한 사람들, 땅 투기한 사람들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주여 이거만 하면 십일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십의 오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갈라먹기 합시다. 맨날 이런 식으로 갈라 먹기로. 말이 갈라먹기지 갈라먹기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우리 애 좋은 대학 들어가면 현금을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갈라먹기 아닙니까? 목사가 그렇게 간증집회 열어서 간증집회하는 부흥사 불러서 갈라먹기 성공사례 쪽 이야기 한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전통적인 성경해석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발적입니다. 항상 우발적이예요. 우리는 리스트를 열개 작성하고 기도하면 열번째 응답해 버립니다. 열두번째를 하면 열세번째를 응답해 버립니다. 항상 없는데서 있게 하고 있는데서 없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앞장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깔아놓은 것은 다 피해 가버려요. 우리가 깔아놓은 것에 응답을 하게 되면 내 기도에 의미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가 주는 응답이에요. "야 봐라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지?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줄게."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 해봅시다. 세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번째 예가 구제. 두번째 기도. 세번째 금식. 이 세가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옳다구나! 걸려 들었구나!"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지금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아 하나님 이거 만큼은 주님한테 내놓을만 합니다. 이거 만큼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로운 겁니다." 라고 하는것만 골라 집어내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자매가 세명이 있는데 큰 딸은 팔보채를 잘하고, 두번째는 짜장면을 잘하고, 세번째는 탕수육을 잘한다고 합시다. 주님께서 방문했다고 합시다. 주님께서 "군만두 내놓라~" 왜그렇게 하시냐면 이미 그들이 군만두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없는데서 있게 하고 죽은데서 살리는 거예요. 예수믿고 구원받으려면 절대 구원 안 돼요. 예수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지, 내가 예수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항목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예수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나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나는 안돼. 나는 이번에 콩쿨 안돼." 극히 비관적 부정적 사고방식. "나는 안돼. 나는 안돼." 박수치면 그것은 박수가 아니야. 야유야. 야유. 어떤 사람은 미스코리아 되었는데 이름이 특이해요. 김성령. 이웃집웬수에 나오죠. 그 사람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제가 알아요. 하도 옛날 사람이 되어서.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 주었는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구제, 기도, 금식. 이 세가지를 가지고 주께서 산등성이를 올라갑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 이 전문가가 누구니까? 앞장선 사람들이 전문가죠. 그러면 세리와 백정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은 의인이 되고 뒤에 선 사람들은 죄인이 되죠. 이것을 주님께서 발판으로 삼아서 이 세상은 죄밖에 없고 내가 준 사람만 의인이다. 나를 믿는자만 의인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제에서 나온 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기도에서 나온 의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받아 죽고, 금식에서 나온 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진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디서부터 해석하고 출발해야 하나면 십자가부터 다시 해석하고 십자가부터 다시 십자가부터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 금식이 나의 금식을 죽였고 너의 기도가 나의 기도를 죽였고 너의 구제가 나의 구제를 죽였느니라 라는 말을 해석할 때 이것이 오늘날 성도아닌 불신자 전부다에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야 합니다.

"구제하셨습니다까? 그 구제때문에 예수님 구제가 죽었어요. 김집사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당신 기도때문에 예수님 기도가 죽어요. 금식하셨습니다까? 아이구 잘했네요. 그 금식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설교해줘야 그 목사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로 그 목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누가 구제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금식하겠습니까? 목사는 하지 마세요.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물어 봅시다. 왜냐하면 기도금식이 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라고 나온 거예요.

아까 리모콘을 눌러 보라고 했잖아요. 금식을 해보세요? 그 금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기도를 목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인간은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기도라고 할 때는 답답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는 기도는 이 기도 내용 때문에 니 목숨을 바칠 여유가 되어 있느냐. 이 기도 내용 아니고 그 기도 내용 때문에 니 목숨을 바칠 용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번에 피아노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보고 "아들 피아노 잘치는 대신 니 목숨 데려 간다. 피아노하고 니 목숨 바꾸라" 미쳤습니까? 내 목숨은 귀한 목숨인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날개를 펴게 해요. 두 날개를 펴게 해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할 정도로. 기도하는 내 소망이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해서 날개를 펴서 내 이름을 죽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죽이기 때문에 끝에 무엇을 붙입니까? 이 모든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십자가 이름인데 그 안에 뭐가 깔려있다? "나의 이름은 깔려야 마땅합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구제를 했는데 이 구제가 우리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구제가 이 구제인데. 한번 봅시다. 그 구제가 간단한건데.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을 성사시킬려면 왼팔없는 장애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왼팔없는 장애인이라도 두뇌상에서 다 인식을 하죠. 실제로 실험해보니까 왼팔이 없는데 왼팔에 이렇게 하면 아야 하고 있다니까요. 왼팔이 없는데, 이미 짤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두뇌에서 정리가 안 되서 아야, 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이. 심지어 장애인까지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조치는 하나밖에 없네. 이 두뇌를 드러낼 것밖에 없죠. 두뇌를 드러내게 되면 뭐가 성립이 안 돼요? 구제가 안 돼요. 구제가 안 돼요.

왜? 두뇌없으면 죽은자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 같으면 누구나 이 말씀은 지킨다? 못지킨다? 못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빠져서 누구한테 따지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니는 하나? 니는 해? 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니는 해? 말로 했으면 실천에 옮겨야지 니는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님은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구제를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룬 일은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구제가 십자가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 그 구제는 누구 뜻대로 구제합니까?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구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이구 구제도 학고 착한일 하네요." 하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가지고 주께서 하십니다."

그야말로 자기 부인이 된 상태에서 왜 못합니까? 나는요, 월 하게 되면 나만 챙기는.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하는 바리새인같은 성품을 발휘해 가지고 내 이러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는, 그 분께서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제라는 통로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기도하는 것은 영빨, 영빨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지도자기 때문에 내가 모범이 되어 앞장서서 나팔 불어야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구나! 우리교회가 부흥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새벽 기도하면 될 것을 가지고 "어디 계시옵니까? 나타나시옵소서." 시위입니다. 시위. 그리고 그 사람은 예의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그 뜻은, "시끄러. 니까짓게 기도야 내 기도가 기도지." 하고 은연중에 상대방을 짓밟은, 깡패같은 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일부러 고향질러 기도를 유도해서 다 깡패로 만들어요. 기도내용 가지고 뭔가 뽐고 그름을 따져야 될것을 기도목소리 가지고 승자와 패자를 가르치는. 주여! 주여! 하니까 이거 허파 양이 큰 사람은 큰 소리 나올 것이고 작은 사람은 백날 해봐야 묻혀서 믿음없는 사람 되버리고.

나무 뿌리를 뽑으라고 하니까 힘 좋은 사람은 몇 번만 흔들어도 뽑히는 걸 가지고 연약한 여자분들, 할머니들은 밤새도록 뽑아야 안 뽑히는 거예요. 완전히 코메디입니다. 금요철야가 코메디입니다.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완전히 헬스클럽입니다. 힘자랑. 목청자랑. 어디 득도합니까? 폭포수 앞에서 소리질러 목선거 자랑하고. 첫번째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남한테 자랑하는 기도와 두번째 기도는 자랑하는 기도는 아닌데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여기 자기가 욕심을 속에다 담아두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기도. 중언부언, 한소리 또하고 한소리 또하고. 주시옵소서 하다가 안되니까 쥐시옵소서. 그래도 안돼.

원래 여자분들이 점수를 까먹는 이유가 남편한테 한마디만 하면 알아 듣는데 두마디 세마디 할 때 "맞다. 아, 내가 그걸 놓쳤구나!" 속으로 알려줘서 고마워 하는데, 두번 세번 하면 고마운게 아니고 짜증나는 거예요. 했던 소리 또하고 했던 소리 또하고.....,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주시옵소서"를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평소에 인간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니가 뭘 필요한지 내가 알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용익 목사님 강의 했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줍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아는 차원과 달라요. 아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독이 될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철이 없어서 독을 달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그야말로 나쁜것을 달라고 해도 주께서는 좋은것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받아 놓고 자기가 기도한 것이 아니니까 맨날 이거말고 이거말고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좋은것을 줬는데. 줬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에서 뭘 줬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왜? 성령을 줘야 그 코스가 예수님 가신 코스이기 때문에. 이 길이 좁은길이고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옆길로 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놈을 이겨야 하겠습니까. 옆에 것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하고나면 사람들이 묻는 것이 뭐냐하면 "목사님 기도할 것이 없네요." 이렇게 나와요. 기도할 것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여 그 나라 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안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어느 도시에 가서 이익을 보리라 하고 한 것이 죄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먹는 것 입는 것 족한줄로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철야하면서 해야 돼요. 부도났을 때 기도해서 원상복귀해서 놀리는 저 놈을 보란듯이 하지 말고.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원천을 까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십자가의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으며 그 피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금식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바쁘니까 굶지를 못해요. 그런데 할짓 없는 사람들만 금식해서 그것가지고 하나의 돈을 얻어내는 밀천으로 삼는 스킬, 기술이에요. 목사가 나 금식하러 간다 하고 설교 맡겨버리고 빼짝말라서 금식하고 오게되면 교인들이 불쌍해서 한 2개월치 봉급을 그냥 주는 거예요. 영 안 믿는 눈치인데요...

목사는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나요. 딱 생각이 없어요. 그것 뿐입니다.

왜? 다른 기술을 배운것이 없기 때문에. 청춘을 바쳐서 배운 기술이기에 다른 사람은 다른 기술을 가지고 밥 먹고 살지만 목사는 이 기술 아니면 가족들하고 밥 못먹고 산다니까요. 영빨, 카리스마 가지고 돈이되는 식으로 해야된다 이 말이죠. 이미 선배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도 천국가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막는 거예요. 막아야 돈이 지한테 오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금식할 때는 차라리 무스 바르고 금식을 했더라도 금식표시가 안나도록 하라 이 말이죠. 이 말은 금식을 누구한테만 보이도록 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냐? 날개펴고, 세상사람들 말고,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옆사람이 아니거든요. 호응도가 아니거든요. 옆사람이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구원받아야지 옆사람 호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긍휼을 입히는 주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앞에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것 때문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주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못 지키지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님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왜 흘려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리모콘 누른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 가운데서 그 죄마저 이미 해소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으로 고마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